

## 환자의 마음 속 아픔까지 살핀다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전담·전문간호사들은 재건 성형을 통해 환자들의 마음속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길 바란다.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는 30여 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큰 발전을 이뤄왔다. 지난 2014년 유방재건술 3,000례 달성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전 세계 성형외과 의사들의 공식 교과서인 ‘뉴 벨리간 성형외과 교과서’에 서울아산병원의 교수들이 주요 집필진으로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9년 두경부암 미세재건성형수술 1,000례를 기록하기도 한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는 2021년 구순구개열 7,000례를 달성하며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렸다. 뛰어난 의료진들 사이에는 묵묵하게 자신들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환자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온 전담·전문간호사들이 있었다.

### 환자 곁으로 다가서는 전담·전문간호사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62병동 전문지원인력실에는 김아영, 한선정, 이화정 전담간호사와 장민영 전문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전담간호사는 쉽게 이야기해서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상의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는 의료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아산병원의 해당분야 간호실무 3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선발되는 전담간호사는 성형외과에 내원한 환자가 수술을 받고 일상생활로 잘 돌아가기까지의 모든 상황을 관여하죠.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부터 수술스케줄 관리, 수술 전 후 교육도 함께 한답니다. 또한 생소한 단어나 용어가 오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의사들과 소통의 채널이 돼서 환자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고 치료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돕지요” 라고 김아영 간호사는 전담간호사에 대해 설명한다.

전문간호사는 특수화된 업무를 수행한다.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가 대학원을 이수하고 국가공인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특히 서울아산병원의 전문간호사는 1년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직무수행 평가를 통해 선발된다. 장민영 전문간호사는 외래 진료에 참여해 환자의 상처를 살피기도 하고, 수술이나 치료에 있어서 다른 진료과와 협업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이어서 수술 후 환자들의 경과 상태를 확인하고 환자에 대한 교육도 담당한다. 외래 진료에 참여해 환자에게 상처를 관리하는 방법을 직접 시연을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진의 지시사항이 병동에서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에는 현재 260명의 전담간호사와 116명의 전문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병동 간호사들이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도움을 주며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 환자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재건 성형

“유방암 수술을 한 환자들의 경우 재건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직 미용 성형과 헷갈리시는 환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유방 확대 수술이나 코 성형 수술과 같은 미용 성형처럼, 재건 성형을 받으면 예뻐지겠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재건 성형은 인체의 기능과 본래의 모양으로 복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심미적인 기능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기대로 가득한 환자를 설득할 때는 늘 조심스럽죠”라고 말한 이화정 전담간호사는 “성형외과 재건 수술은 생명과 직결되진 않지만 훼손된 신체를 되살려 환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신체의 모양과 기능을 의학적 정상으로 되돌리는 치료”라고 덧붙였다.

수술 시기를 놓친 구순구개열 환자들을 볼 때마다 한선정 전담간호사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경제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술 시기를 놓친 환자가 찾아올 때는 더욱더 그렇다.

구순구개열은 성장하면서 피부 뿐만 아니라 근육, 연골, 뼈 등 얼굴의 많은 부분을 치료하기에 시술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통상적으로 생후 11주 이후부터 구순 재건 성형술을 계획하며 성인이 될 때까지 적절하고 체계적인 치료를 해나간다.


“태아가 구순구개열이란 말을 듣는 순간 산모와 보호자들은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산모가 가족들의 지지조차 받지 못한 채 출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순구개열로 인해 사회적인 시선과 차별에 위축돼서 마음의 상처를 호소하는 환자들도 보왔어요.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의 전담·전문간호사는 이러한 환자, 보호자에게 구체적인 치료 정보를 전해서, 의료진을 믿고 치료에 대한 확신이 서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재건 성형의 긍정적 효과를 알아주길 바란다

2016년 12월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로 너무도 상황이 긴박했던 환자가 들이닥쳤다.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의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는 절단을 하고 살을 메꾸어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했겠지만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진들은 환자의 미래를 위해 다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정형외과에서는 뼈를 보완해나갔고 성형외과에서는 피부를 메꿔가며 환자의 생명은 물론 다리까지 살려냈다. 당시 치료에 참여했던 장민영 전문간호사는 현재 외래를 오가며 잘 걸어 다니는 그 환자를 볼 때마다 감동을 느낀다.

한선정 전담간호사는 “안면왜소증으로 아래턱이 작았던 아이가 재건 성형을 통해 안쪽까지 양치가 되는 것이 신기하다고 말했을 때 보통 사람에게는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되는 행동들이 안면 기형 환자들에게는 일생의 소원이었을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졌다”라고 전하며 “환자들이 재건 성형을 통해 없었던 신체 일부의 되찾아 일상의 기쁨을 되찾을 때 전담·전문간호사들은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성형외과는 미용 성형만 하는 곳’이라는 선입견으로 진료조차 보지 않으려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전담·전문간호사들은 안타깝다. 그렇기에 이들은 인식의 변화를 통해 많은 환자가 재건 성형의 긍정적인 효과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환자들이 신체의 일부를 다시 재건하여 주위의 시선으로 인해 생긴 마음속 상처마저 온전히 치유되길 바란다.  글 편집부



환자들이 재건 성형을 통해 일상의 기쁨을 되찾을 때 전담·전문간호사들은 큰 보람을 느낀다.